



연인원 4천여 명 운집... 폭염 뚫고 성결대학교 대강당 뜨겁게 달궜
장년 수련회 연계 및 교단 연합 사역으로 영적 부흥 초석 다져

기복적인 폭염 속에서도 성결의 뜨거운 열정이 더 뜨겁게 타올랐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총재 이상복 목사·대표회장 이상복 목사)가 주관한 '제43차 전국교역자 및 평신도초청 여름산상성회'가 지난 2026년 8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성결대학교 8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은혜 가운데 성료됐다.

'다시 성결! 다시 부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는 전국 150여 교회에서 연인원 4천여 명의 성결 가족이 모여 성회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뜨거운 찬양과 합심 기도도 영육의 회복과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1983년 시작된 여름산상성회는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40~50대 젊은 목회자 중심의 '이음목회연합' 및 각 지방회와의 협업을 통해 교단 대표 영성운동으로 재도약했다. 특히 올해는 개교회의 '장년 수련회'를 겸해 진행하면서 지방 교회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 교단 부흥의 초석을 든든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3 성회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름산상성회는 부흥사회만의 힘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예배의 사회와 기도, 성경봉독, 말씀, 헌금기도와 축도 등 각 순서를 맡아 섬겨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 역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집회를 마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 조금 더 기도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름산상성회가 매년 기다려지고 기대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흥사회가 더욱 겸손하게,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1천여 명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전국 150여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받은 집회가 우리 교단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이 산상부흥성회를 반드시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4 앞으로 여름산상부흥성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부흥사회가 주관하며 교단의 영성운동을 이끌어온 여름산상부흥성회가 올해 제43회를 맞았습니다. 부흥사회의 선배 목사님들은 교단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성회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으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흥사회 회원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 교단 안에 영성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성결! 다시 부흥!'의 주역으로 서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부흥사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각 지방회와 이음목회연합이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산상부흥성회는 교단의 영성운동을 일으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총회가 앞장서고 부흥사회가 주관하며, 전국 교회와 각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교단의 대표적인 성회로 더욱 발전하고 확장돼야 합니다.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성령의 불과 능력을 받아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기도와 영성운동을 일으킬 때 개교회가 살아나고 그 힘이 모여 예정교단의 새로운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성결! 다시 부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맡기신 사대지 사명입니다. 제43차 전국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산상성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참여해 주신 전국의 모든 교회와 기관, 목회자와 평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봉사자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글 | 김영국 목사·사진 | 윤호웅 목사

■ 인터뷰: 대표회장 이상복 목사



1 이번 여름산상부흥성회를 어떻게 기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올해 성회를 준비하면서 인원이 집중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많은 인원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회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이 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영성운동을 일으키도록 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결국 교단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를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준비하고, 참석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는 장년 성도들을 위한 수련회가 필요하다는 분체의식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은 여름마다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장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수련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예성부흥사회는 여름산상성회를 장년수련회로도 발전시켜, 장년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 중심으로 바로 서고 개교회의 부흥을 주도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현재 성결대학교에 새로운 기숙사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완공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벽과 오전, 오후와 저녁 집회까지 더욱 충실하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참석자들이 집회 기간에 온전히 머물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셋째는 감사진 선정입니다. 교계에 잘 알려져 있지만 개교회에서는 쉽게 모시기 어려운 감사들을 1년 전부터 섭외해 저녁 집회의 주강사로 모였습니다. 또한 교단 안에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회자들을 감사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성회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올해 성회는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모두 큰 은혜와 의미 있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먼저 3일간 연인원 4천여 명이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저녁 집회에는 매일 1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벽 집회에도 장년수련회 참가자들과 강사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오전 집회 역시 지난해보다 참석자가 100여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 준비된 식사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교회와 기관이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기꺼이 후원해 주셨으며, 후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성회에 참석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좋은 평가가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더 많은 분이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고백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입니다. 총회장님께서 감사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총무님을 비롯한 총회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성회가 부흥사회의 행사가 아니라 총회와 전국 교회가 함께하는 교단 차원의 영적 성회로 자리매김했다는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열매입니다.

제43차 전국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산상성회 감사의 글

할렐루야!

예성 산하 모든 교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43차 전국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산상성회가 지난 8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성결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장년수련회로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이번 성회도 2025년과 같이 전국교회와 더불어 이음목회연합(회장 최윤영 목사), 경기지방회(회장 한민기 목사), 안양지방회(회장 이승균 목사), 안양중앙지방회(회장 김중준 목사)가 함께 하였으며, 전라남도 광주, 충남 서산과 예산, 전북 익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예성 산하 전국교회와 교역자, 각 기관과 기관장,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예성부흥사회는 베풀어 주신 사랑을 힘입어 더욱 발전하며, 성결부흥운동에 전심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 열릴 제44회 여름산상성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성부흥사회 대표회장 이상복 목사 드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

2026년 여름산상성회 광고후원 영수기

교회 및 기관	후원금	교회 및 기관	후원금	교회 및 기관	후원금
이음목회연합(최윤영)	3,000,000	참사랑교회(이종아)	300,000	남전도회한국연합회(최현종)	300,000
성명수생교회(이종민)	1,000,000	통촌제일교회(이종민)	300,000	여전도회한국연합회(이혜경)	300,000
두란노교회(이상훈)	1,000,000	햇빛교회(김정환)	300,000	장지교회(한민기)	300,000
반월교회(이상복)	1,000,000	심음교회(이종호)	300,000	안양중앙지방회(이상복)	300,000
주님왕예교회(이종호)	1,000,000	신명교회(이상훈)	300,000	성명수생교회(김정환)	300,000
신명수생교회(이상훈)	1,000,000	간양중앙지방회(김중준)	300,000	예성사모회(한은기)	300,000
성명수생교회(이상훈)	1,000,000	성명수생교회(이상훈)	300,000	예성사모회(김혜경)	300,000
참사랑교회(이상복)	1,000,000	부흥수생교회(이상훈)	300,000	이음목회(김정환)	200,000
예성유지재단(류제민)	1,000,000	대신교회(정동수)	300,000	대신교회(한은기)	200,000
성명수생교회(이상훈)	1,000,000	목암교회(송진우)	300,000	간양교회(송창우)	200,000
참사랑교회(이상복)	1,000,000	광명교회(김정환)	300,000	동광교회(김정환)	200,000
예성유지재단(류제민)	1,000,000	햇빛교회(김정환)	300,000	영동교회(이상훈)	200,000
성명수생교회(이상훈)	1,000,000	신수동교회(이상훈)	300,000	목암교회(이상훈)	200,000
목동교회(이상훈)	500,000	성지교회(송창우)	300,000	영동교회(이상훈)	200,000
백운교회(이상훈)	500,000	성명교회(김정환)	300,000	이음·광복교회(서민)	200,000
사모중앙교회(김정환)	500,000	참사랑교회(이상훈)	300,000	예성사모회(김정환)	200,000
간양교회(이상훈)	500,000	영광교회(김정환)	300,000	간양교회(이상훈)	200,000
새예교회(김정환)	500,000	배산교회(김정환)	300,000	간양교회(이상훈)	200,000
늘사랑교회(김정환)	500,000	영광교회(김정환)	300,000	간양교회(이상훈)	200,000
부흥수생교회(김정환)	500,000	금마중앙교회(김정환)	300,000	간양교회(이상훈)	200,000
익산부흥교회(송창우)	500,000	간양교회(김정환)	300,000	사모교회(김정환)	100,000
삼성교회(김정환)	500,000	마조교회(이상훈)	300,000	송죽교회(이상훈)	100,000
반월교회(이상훈)	500,000	서울중앙교회(이상훈)	300,000	사모교회(이상훈)	100,000
영광교회(김정환)	500,000	충주교회(이상훈)	300,000	배산교회(김정환)	100,000
보혜교회(이상훈)	500,000	한산교회(김정환)	300,000	세개교회(이상훈)	100,000
사모교회(이상훈)	500,000	예수교회(김정환)	300,000	성명수생교회(김정환)	100,000
예전교회(김정환)	500,000	해운교회(김정환)	300,000	예전교회(김정환)	100,000
영광교회(김정환)	500,000	코디교회(김정환)	300,000	송죽교회(김정환)	100,000
국제선교회(김정환)	500,000	영광교회(김정환)	300,000	영광교회(김정환)	100,000
사모교회(김정환)	500,000	성명수생교회(김정환)	300,000	대동교회(김정환)	100,000
간양교회(김정환)	500,000	성명수생교회(김정환)	300,000	장지교회(김정환)	100,000
그루티교회(김정환)	500,000				
				합계	38,300,000원